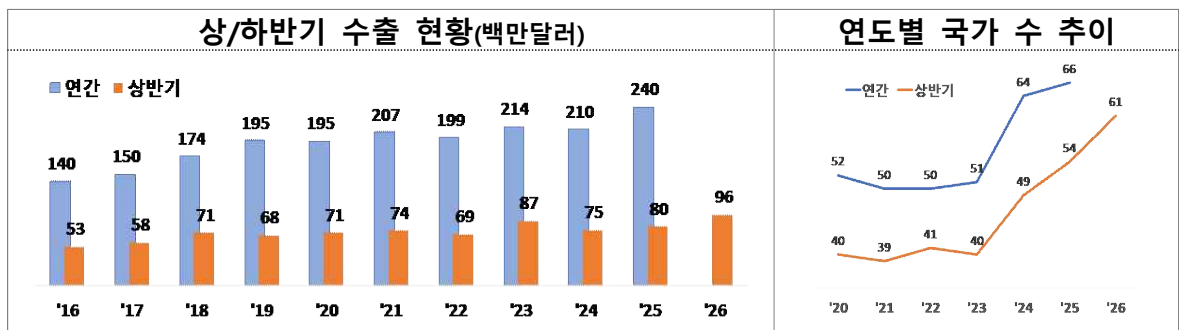


국경 넘은 달콤함, K-과일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 고당도 프리미엄 전략, K-콘텐츠 인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

< 요약 >

- ◇ (현황) '26년 상반기 과실류 수출액은 9,572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9.7% 증가하며 동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치(2억 4,049만 달러) 달성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2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액 경신이 기대된다.
- ◇ (요인) ▲프리미엄급 품질을 앞세운 고급화 전략과 ▲콜드체인(저온 유통) 인프라 고도화, ▲K-콘텐츠 확산으로 인한 K-푸드 인지도 상승이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 ◇ (품목) 전체 수출의 90.2%를 점유하는 3대 주력 품목(딸기·포도·배)이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 (국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인 61개국('25년 상반기 54개국, +7개국)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고 있으며, 싱가포르(2,288만 달러)와 태국(1,771만 달러) 등 동남아 시장이 성장을 주도했다.
- ◇ (지역) 최대 수출 지역인 경남(비중 57.4%)과 경북(22.7%), 충남(6.4%) 등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수출의 86.4%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담당 부서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경훈 (042-481-7790)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정률 (042-481-7845) 이선희 (042-481-3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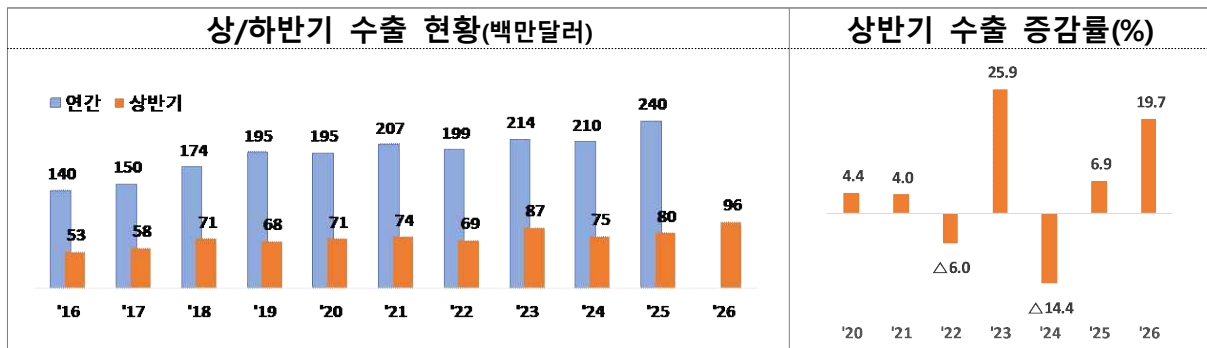
□ (현황) '26년 상반기 과실류 수출 9,572만 달러(19.7%↑)로 역대 최대

- 지난해 연간 역대 최대 실적(2억 4,049만 달러)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역시 고성장세를 지속하며 동기간 최대 실적을 경신

* 상반기 수출액 추이 : ('23년) 8,746만 달러(25.9%↑) → ('24년) 7,484만(14.4%↓) → ('25년) 7,999만(6.9%↑) → ('26년) 9,572만(19.7%↑)

- 계절적 영향으로 하반기에 수확 및 수출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과일의 특성상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2년 연속 연간 최고 수출액 달성 기대

* 상/하반기 수출 비중 : ('24.상) 35.6% vs. ('24.하) 64.4% / ('25.상) 33.3% vs. ('25.하) 66.7%



□ (요인) 우수한 품질 기반 고급화 전략,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 K-콘텐츠 확산이 맞물리며 수출 경쟁력 강화

- (고품질·고급화) 높은 당도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앞세운 프리미엄 전략으로 해외 고객들의 신뢰와 관심도 제고

- 현지 유통업체 및 수요자들은 한국산 과일을 비교적 고가임에도 단맛과 신선도 면에서 경쟁 제품 대비 프리미엄급 상품으로 평가

* "What Are Korean Shine Muscat Grapes And Why Are They Expensive?"(Tasting Table, '24.1.17)

- (저온유통) 장기간 보관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콜드체인(Cold Chain) 기술 확대로 신선도 유지 및 원거리 수출 가능

-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저온·냉장 운송 기술과 당일배송 서비스 확대 등 수출 물류 환경 개선

* "How Korea's Fruit Exporters Are Tapping Overseas Demand"(FedEx, '24.11.14)

- (K-콘텐츠 확산) K-드라마 영화 등 노출 확대로 K-푸드 전반 인지도 제고
 - K-푸드에 대한 친밀감이 한국산 과일 구매로 직결되며 **촉매제 역할**

□ (품목) **딸기**(비중 63.2%) > **포도**(18.6%) > **배**(8.4%) 등 3대 품목이 성장 견인

- (딸기) 전체 과실류 수출 1위 품목,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한 6,049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 (국가) **싱가포르**(1,921만 달러, 비중 31.8%)와 **태국**(1,656만 달러, 27.4%)이 수출 주력 시장으로 전체 성장을 뒷받침
 - (지역) **경남**(5,380만 달러, 비중 88.9%) 지역이 최대 수출 거점, 경북과 충남 지역 또한 수출을 크게 늘리며 수출 다변화에 기여
- (포도) 총 수출액 1,783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6.5% 성장세
 - (국가) **대만**(920만 달러)이 전체 포도 수출의 절반 이상(비중 51.6%)을 차지하는 핵심시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홍콩**(12.0%)과 **싱가포르**(10.5%)를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꾸준히 확장 중
 - (지역) **경북**(1,600만 달러, 비중 89.8%)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고 있고, **충북**(152만 달러, 8.6%)이 그 뒤를 이음
- (배) 전년동기대비 62.4% 증가한 803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력 수출 품목으로서 입지 강화
 - (국가) **미국**(443만 달러, 비중 55.2%)이 전체 배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여 성장을 견인했고, **베트남**(408.9%↑) 등에서도 수요 지속 증가
 - (지역) **충남**(389만 달러, 비중 48.5%)이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고, **경기** 지역도 전년동기대비 83.9% 상승하며 수출 증가에 한몫
- (참외) 수출금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올해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164만 달러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 지속

< 과실류 주요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률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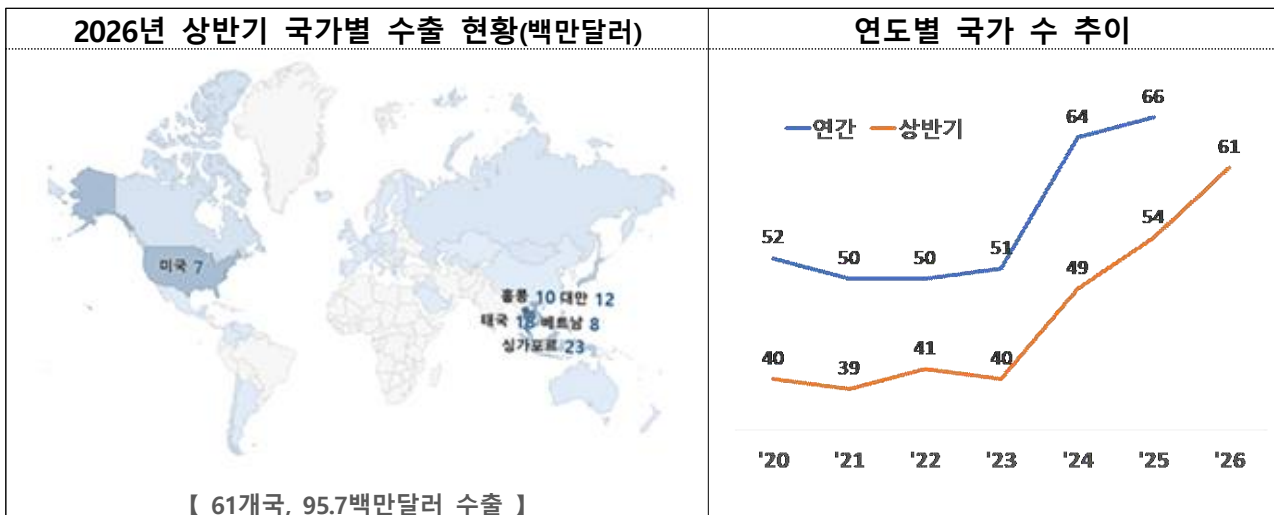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과실류	199.0	△3.8	214.1	7.6	210.3	△1.7	240.5	14.3	95.7	19.7
딸기	58.5	△9.4	70.9	21.2	68.9	△2.8	71.7	4.0	60.5	15.8
포도	33.3	△10.8	44.7	34.4	56.8	27.0	85.4	50.4	17.8	26.5
배	74.4	3.7	74.5	0.2	58.8	△21.0	58.5	△0.6	8.0	62.4
키위	1.2	7.2	1.9	58.6	1.8	△9.2	3.3	85.3	2.1	△5.3
참외	0.7	-	1.5	110.2	1.3	△9.2	1.8	31.9	1.6	4.1
기타	31.0	△3.7	20.6	△33.5	22.8	10.4	19.9	△12.5	5.7	14.0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 (국가) **싱가포르**(비중 23.9%), **태국**(18.5%), **대만**(12.1%)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4.5%를 점유하며 수출의 핵심 축을 담당, 총 61개국(+7)으로 수출시장 지속 확장 중

* 상반기 수출국 추이: ('22) 41개국 → ('23) 40 → ('24) 49 → ('25) 54 → ('26) 61



- (싱가포르) 우리나라 과실류 최대 수출국(비중 23.9%)으로, 딸기(1,921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26.1%↑)를 중심으로 포도(186만 달러, 60.4%↑), 배(47만 달러, 2,487.4%↑) 등 수출도 크게 증가
- (태국) 딸기 수출 비중이 93.5%에 달하는 핵심 시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25.6%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 기록

- (대만) 포도(비중 79.3%)가 수출 주도, 전년동기대비 33.8% 성장
- (일본) 키위(비중 48.0%)와 참외(29.1%) 등 기존 주력 품목 이외 품목 비중이 높아 과실류 수출 시장에서 특정 품목 의존도 완화
- (미국) 전년동기대비 44.9% 증가한 683만 달러를 기록하며, 배(443만 달러)와 포도(92만 달러)를 중심으로 수출이 활발
- (캐나다) 수출규모는 128만 달러로 비교적 적지만, 포도(56만 달러, 8.8%↑)와 딸기(36만 달러, 77.2%↑)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5.1% 증가

< 국가별 과실류 수출액 및 증감률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국가	금액	증감률
1위	미국	40.8	16.1	미국	45.5	11.4	미국	45.1	△0.9	대만	61.4	67.9	상호	22.9	30.4
2위	홍콩	32.6	△1.2	대만	33.6	25.3	대만	36.6	9.0	미국	49.6	10.1	태국	17.7	25.6
3위	베트남	30.6	26.6	홍콩	30.5	△6.4	상호	25.3	4.3	상호	26.9	6.5	대만	11.6	33.8
4위	대만	26.8	△1.6	베트남	25.1	△1.0	홍콩	23.3	△2.7	태국	23.1	18.3	홍콩	9.8	△4.6
5위	상호	18.6	△1.6	상호	24.2	30.0	태국	19.5	15.2	홍콩	19.1	△1.9	베트남	7.7	1.7
기타	45개국	49.5	△1.7	46개국	55.1	11.4	59개국	60.6	9.9	61개국	60.3	△0.5	56개국	26.1	19.2
	전체	199.0	△3.8	전체	214.1	7.6	전체	210.3	△1.7	전체	240.5	14.3	전체	95.7	19.7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 (지역) 경남(비중 57.4%), 경북(22.7%), 충남(6.4%)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수출의 86.4%를 차지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주력 품목을 앞세워 지역별 수출경쟁력을 확보
- (경남) 18년 연속 상반기 수출 1위를 기록했으며, 딸기(5,380만 달러, 12.5%↑)가 지역 수출의 98.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매김
- (경북) 포도(1,600만 달러, 44.1%↑)가 수출의 73.8%를 차지하며, 딸기(265만 달러, 71.4%↑), 참외(161만 달러, 3.7%↑) 또한 수출 증가세

- (충남) 배(389만 달러, 89.0%↑)가 지역 수출의 63.5%를 차지하며, 딸기(214만 달러, 55.2%↑) 역시 35.0% 비중으로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역 수출을 뒷받침

< 지역별 과실류 수출액 및 증감률 현황 >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순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지역	금액	증감률	지역	금액	증감률	지역	금액	증감률	지역	금액	증감률	지역	금액	증감률
1위	경남	63.0	△4.7	경남	71.2	13	경남	71.1	△0.3	경북	78.4	28.5	경남	54.9	12.5
2위	경북	50.9	△9.8	경북	52.8	3.6	경북	61.0	15.6	경남	73.8	3.9	경북	21.7	39.2
3위	충남	30.1	△3.3	충남	30.4	1.2	충남	22.7	△25.2	충남	25.6	12.5	충남	6.1	65.4
4위	전남	18.6	24.2	전남	23.8	28.1	전남	19.6	△17.9	전남	22.0	12.2	전남	2.9	△20.9
5위	경기	9.7	△1.4	경기	9.9	2.5	경기	8.3	△16.7	충북	15.1	103	경기	2.2	81.7
기타	기타	26.8	△6.1	기타	26.0	△3.1	기타	27.8	6.9	기타	25.7	△7.4	기타	7.9	42.2
	전체	199.0	△3.8	전체	214.1	7.6	전체	210.3	△1.7	전체	240.5	14.3	전체	95.7	19.7

* 밑줄은 해당 기간별 역대 최대 수출액임

□ 과실류* 수출 현황

(단위: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

연도	수출액	증감률	연도	수출액	증감률
2002년	69.3	-	2015년	126.6	△2.0
2003년	52.8	△23.9	2016년	140.4	10.9
2004년	61.1	15.7	2017년	150.3	7.0
2005년	84.9	39.0	2018년	174.1	15.9
2006년	58.6	△31.0	2019년	195.4	12.2
2007년	73.3	25.1	2020년	194.7	△0.4
2008년	82.7	12.9	2021년	206.9	6.3
2009년	115.2	39.2	2022년	199.0	△3.8
2010년	116.3	1.0	2023년	214.1	7.6
2011년	97.6	△16.1	2024년	210.3	△1.8
2012년	106.4	9.0	2025년	240.5	14.3
2013년	116.9	9.9	2025년 상반기	80.0	6.9
2014년	129.2	10.5	2026년 상반기	95.7	19.7

* 관세청 신성질별 기준으로 집계

□ 주요 품목별 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달러)

연도	딸기	포도	배	키위	참외*	감
2017	43.9	8.5	66.2	3.1	-	10.5
2018	47.4	14.0	80.0	2.0	-	11.2
2019	54.3	22.8	83.2	2.2	-	12.1
2020	53.7	30.8	71.7	1.3	-	14.4
2021	64.6	37.3	71.7	1.1	-	8.9
2022	58.5	33.3	74.4	1.2	0.7	10.4
2023	70.9	44.7	74.5	1.9	1.5	6.4
2024	68.9	56.8	58.8	1.8	1.3	8.7
2025	71.7	85.4	58.5	3.3	1.8	8.0
2025년 상반기	52.2	14.1	4.9	2.2	1.6	1.2
2026년 상반기	60.5	17.8	8.0	2.1	1.6	0.6

* 참외는 2022년 품목분류기준(HSK) 신설

□ 국내 지역별 과실류 수출액 현황

(단위: 천달러)

연도	동남권			대경권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2017년	52,676	746	1,627	29,051	431
2018년	53,256	1,135	1,746	37,285	376
2019년	59,166	1,044	1,717	44,539	328
2020년	61,014	1,359	1,151	49,553	243
2021년	66,133	1,473	1,237	56,434	91
2022년	63,034	1,001	1,278	50,908	50
2023년	71,237	866	1,411	52,764	672
2024년	71,051	654	990	60,986	420
2025년	73,796	825	1,021	78,363	229
2025년 상반기	48,829	377	-	15,570	122
2026년 상반기	54,920	701	85	21,681	246

연도	충청권				수도권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경기	서울	인천
2017년	22,031	35	1,348	2,644	10,153	746	544
2018년	30,142	179	405	3,829	14,044	877	854
2019년	34,333	173	1,047	4,299	13,190	1,871	1,001
2020년	34,808	78	645	4,097	11,398	1,819	738
2021년	31,091	125	719	4,872	9,800	2,875	667
2022년	30,051	186	449	5,634	9,666	2,447	1,386
2023년	30,397	51	552	6,254	9,911	1,737	1,184
2024년	22,736	44	643	7,441	8,260	2,260	836
2025년	25,579	452	490	15,103	7,756	2,905	929
2025년 상반기	3,704	125	-	2,631	1,191	1,332	260
2026년 상반기	6,125	249	119	1,714	2,163	1,401	361

연도	호남권		제주	전북	강원
	전남	광주			
2017년	14,220	16	3,314	10,256	156
2018년	14,145	5	3,993	11,642	176
2019년	14,756	26	4,319	13,332	226
2020년	11,955	55	7,129	8,501	131
2021년	14,969	162	7,595	8,569	129
2022년	18,587	77	5,186	9,016	79
2023년	23,813	91	5,542	7,594	15
2024년	19,560	60	6,963	7,389	55
2025년	21,952	74	5,140	5,828	50
2025년 상반기	3,699	41	1,432	656	21
2026년 상반기	2,928	19	2,035	811	161